



해외보험리포트

태국

오병국, 김성균, 김연희

Executive Summary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 태국은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로서 '태국 4.0' 정책을 추진하고 '20년 국가발전전략(20 year National Strategy 2017~2036)'을 세워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2023년 태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출산율 감소,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주변국 대비 높은 최저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태국 보험감독당국은 4차 보험산업 개발계획(Insurance Development Plan Vol. 4(2021~2025))을 수립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리스크 관리, 보험 인프라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또한 2022년 9월부터 생명·손해 보험회사의 투자 범위가 사모펀드, 부동산, 뮤추얼 펀드, 인프라 투자신탁에 더해 해외 벤처 캐피탈, 신디케이트 론까지 확대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태국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7위이며,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69%, 손해보험이 31%를 차지하는 시장임.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기인한 변액보험 수요 증가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기준 생명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613,845백만 바트이며,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시장임. 생명보험 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이며, 코로나19 및 디지털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방카 슈랑스 채널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기간 발생한 영업손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기준 손해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약 252,765백만 바트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나,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으로 대략 1,000억 바트의 손실을 경험함.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은 자동차보험, 기타특종보험 내 개인상해보험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함. 손해보험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낮은 경쟁시장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중개인임

I

국가 개요 및 경제

1. 국가 개요

-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이며,¹⁾ 웰니스·의료관광 분야에서 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 중앙부에 위치하며,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시장과 접하고 있는 국가임
 - 2018년 태국 경제성장률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수출 호조 등으로 4.2%를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6.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2022년 하반기부터 관광산업이 회복함에 따라 2022년 태국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함
 - 2022년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태국은 의료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부문에서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태국은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이며, 태국관광협회(Association of Thai Travel Agents; 이하 'ATTA'라 함)에 따르면 2022년 해외 관광객은 1,180만 명임
 - 태국 정부는 2022년 10월 웰니스 관광 거점 단지 3곳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²⁾ 2023년 1월에는 관광산업 개발 5개년 계획을 통과시키는 등 지속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반면 태국은 출산율 감소,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주변국 대비 높은 최저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태국의 총 인구는 2020년 6,980만 명에서 2021년 7,008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신생아 수는 2020년 58만 명에서 2021년 54만 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함
 - 2021년 기준 태국의 합계출산율은 1.51명이며, 이는 주변국인 베트남(2.53명), 캄보디아(2.50명) 보다 낮은 수치임
 - 태국 민간 연구기관인 카시콘리서치센터(Kasikorn Research Center)는 경제 악화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였으며, 덩크족 증가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발표함

1) 아세안 10개국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포함됨. 아세안 국가의 GDP는 인도네시아가 1조 3,900억 달러로 가장 높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의 순서로 뒤를 잇고 있음

2)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이며, 웰니스 관광은 여행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심신의 행복, 건강, 등을 함께 추구하는 관광 방식을 의미함

- 태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3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시콘리서치센터는 2029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NESDC)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국의 노동인구 규모는 3,878만 명이나, 2040년에는 약 3,650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함
 - 태국의 최저 임금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태국 정부는 2023년 숙련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존 465바트(13달러)에서 700바트(19.7달러)로 인상함
 - 2022년 기준 태국의 최저임금은 8.6달러였으며, 이는 주변국인 미얀마(2.6달러), 라오스(2.5달러), 캄보디아(6.5달러), 베트남(5.6~6.3달러)보다 높은 편임
 - 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기준 1.2%였으나, 2022년에는 14년 만의 최고 상승률인 6.3%를 기록함
 - 바트화는 2022년 4분기 기준 달러당 36.38바트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 1분기 기준 달러당 33.9바트까지 하락함
 - 태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태국 경제가 활성화되면 바트화 가치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의 헌법은 1932년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이후 거듭된 군사 쿠데타와 반 쿠데타로 인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국민투표를 거쳐 2017년부터 발효된 현행 헌법은 군주와 군부로 구성된 전통 기득권층의 세력을 확대하였음
-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 상원은 군부에 의해 전적으로 임명되는 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헌법적 위기를 군주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군주의 힘은 확장되었음
- 태국에서 투표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보장되며, 투표는 강제적이지만 고정된 징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표 1〉 태국 주요 국가 지표¹⁾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51만 3,120km ² (한반도의 2.3배)	인구	7,160만 명(세계 20위)
생산인구 비중	70.9%	고령화 비중	12.9%
소비자물가상승률	6.1%	경제성장률	2.6%
GDP	4,953억 달러	1인당 GDP	6,909달러
기대 수명(남)	74.4세	기대 수명(여)	81.0세

주: 1) 기대 수명(2019년 기준) 제외 모두 2022년 기준임

자료: The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 WHO(2023), "World health statistics 2023: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OTRA 국가지역정보(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ation/actionNatlemList.do?pageNo=&pagePerCnt=10&SITE_NO=3&MENU_ID=220&CONTENTS_NO=1&pRegnCd=01&pNatCd=764&chkNatSn=764none)를 기초로 작성함

2. 경제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NESDC)는 1961년부터 5개년 중장기 계획,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ational Economic Social Development Plan; NESDP)을 추진하고 있음

- 태국은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에 기초 산업인 농업과 산업, 광업 위주로 발전계획을 편성했고, 1970년대에는 상업과 서비스업의 발전계획 추가, 1980년대에는 중앙 분권 계획을 최초 도입했으며, 1990년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 이후 2000년대부터는 창조산업(10차), 지식기반산업(11차), 혁신주도개발 전략(12차)을 수립함

〈표 2〉 태국 주요 경제정책 변천

차수	시기	경제·사회 상황	주요 특징
1차	1961~1966	저개발 농경사회	• 경제, 행정, 인력 등에 걸친 보편적 계획 • 농업 및 산업, 광업 등 영역별 계획 수립
2차	1967~1971		
3차	1972~1976	중앙집권적 정책, 1차 오일쇼크	• 기존 5개년 계획 항목에 지역별 발전계획, 상업 및 서비스업 발전계획 추가
4차	1977~1981	소득격차, 환경 문제	• 소득 분배 계획, 무역 및 관광 계획 수립
5차	1982~1986	국내 정치 안정, 2차 오일쇼크	• 중앙 분권 계획 수립 • 권역별(북부, 남부, 국경 지역 등) 계획 수립
6차	1987~1991	국제 경제 불안 지속	• 행정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공기업 발전계획 수립 등 정부 주도의 성장 추구
7차	1992~1996	민주화 진전	• 신 경제 구역 발전계획 및 삶의 질 개선 계획 수립
8차	1997~2001	동아시아 외환위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획 등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 시장 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
9차	2002~2006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외환위기 극복	• 자족경제(Self-Sufficiency Economy) 도입 • 인간·사회·경제·환경 균형개발 추구
10차	2007~2011	글로벌 금융위기, 정정 불안	• 친환경 성장 • 행복 사회 추구
11차	2012~2016	안보, 기후변화, 테러 이슈 증대,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 정의 사회 구현 • 지식기반경제 추구
12차	2017~2021	군부정권 지속, 중진국 함정 극복 과제	• 태국 4.0 정책 추진 • 20년 국가발전전략 연계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www.nesdc.go.th); KDB 미래전략연구소(2019), 『태국·말레이시아 협력 확대 방안 연구』를 기초로 작성함

○ 태국 정부는 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이자 혁신주도 경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태국 4.0' 정책을 추진하였음

- 태국 4.0 정책은 태국 1.0(농업), 태국 2.0(자동차, 전자), 태국 3.0(관광, 의료, 물류)에서 발전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혁신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태국 4.0 정책하에 주로 육성할 산업은 기존 산업인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제품, ③ 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바이오 기술, ⑤ 미래형 식품과, 미래 산업인 ① 로보틱스, ② 항공·물류, ③ 바이오연료·바이오화학, ④ 디지털, ⑤ 의료 허브화이며, 지리적으로는 동부경제회랑(East Economic Corridor; EEC)을 집중 개발할 예정임
 - 동부경제회랑은 소요 예산 및 면적 측면에서 아세안 최대 규모의 개발프로젝트이며, 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을 연결하는 동서경제회랑과 태국·라오스·중국을 연결하는 남북경제회랑을 중심으로 함

○ 또한 태국 정부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핵심 목표로 2017년, '20년 국가발전전략(20 year National Strategy 2017~2036)'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꾸준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태국의 20년 국가발전전략은 6대 우선전략과 4대 지원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전략은 ① 국가안보, ② 경쟁력 향상, ③ 인적자원 개발·제고, ④ 사회적 기회·평등 확대, ⑤ 환경 친화적 개발·성장, ⑥ 행정 개혁임
 - 6대 우선 전략은 ① 인적자원 잠재력 개발, ② 정의 구현 및 사회 불평등 해소, ③ 경제 증진 및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 ④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친환경 성장 추진, ⑤ 번영과 지속가능성 달성을 향한 국가개발을 위한 국가 안정, ⑥ 공공부문 효율성 및 거버넌스 강화임
 - 4대 지원전략은 ① 인프라 및 물류 개선, ② 과학·기술·연구·혁신 향상, ③ 도시·지역·경제 구역 개발, ④ 국제개발협력 지원임

○ 2023년 태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임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2023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2.7~3.7%로 전망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도 각각 3.4%, 3.6%의 성장을 예측함
 -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바트화 가치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칠 가능성도 상존함
- 태국은 소득 계층별 빈부 격차가 큰 국가에 속하며, 최근 중산층 가구 증가에 따라 즐거움과 경험을 주는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 태국의 민간소비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를 중심으로 외식업, 여행업, 고급 브랜드 등에 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3.2% 증가함
 - 2022년 기준 연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계층은 5만 명이며, 이 중 30~39세의 고소득 계층이 2만 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C)는 2023년 수출 목표를 2,930억 달러로 설정하였으며,

중동, 남아시아, 중국,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예정임

-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출은 2022년 기준 2,8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수입은 3,0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함
- 한편, 태국국립화주위원회(Thai National Shippers Council; TNSC)는 미국 경기 둔화, 중국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 태국 바트화 가치 변동 등에 기인해 수출이 1~3% 둔화될 것으로 예측함
- 태국 관광산업은 주력산업 중 하나이며, 태국관광협회(ATTA)에 따르면 2022년 방문 해외 관광객 수는 1,180만 명임
 - 태국관광협회는 2023년 방문 해외 관광객 수가 2,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장기거주비자(Long-Term Resident Visa; LTR Visa)를 도입했으며, 2023년 6월부터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1인당 300바트의 입국세를 징수하기 시작함
- 2022년 11월, 국제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와 피치는 인바운드 관광 회복과 공공지출 확대에 기반하여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결정함

II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1.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태국에서 보험 법안은 각료회의, 하원의원 또는 유권자 5만 명의 청원을 통해 발의될 수 있으며, 법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태국 보험감독위원회(Office of the Insurance Commission; OIC), 정부 내각, 입법자문기관(Council of State), 의회 위원회, 왕실의 승인을 순서대로 받아야 함
 - 새로운 법안의 초안 작성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초안이 작성되면 검토를 위해 정부 내각에 제출됨
 - 이후 추가 검토를 위해 입법자문기관(Council of State)으로 전달되며, 입법자문기관은 정부 내각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재수정함
 - 정부 내각과 입법자문기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안 초안은 의회로 보내지고, 추가 검토를 위해 의회 위원회로 전달됨
 -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각각에서 세 차례의 독회를 거쳐야 하며, 의회 승인 시 왕실의 승인을 위해 군주에게 보내짐
 - 군주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검토를 위해 의회로 반송되며, 군주 승인 이후 왕립 태국 법률 저널인 Royal Thai Government Gazette에 게재되면 정식 법으로 채택됨
- 보험 법안은 장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 위원이 발행한 선언, 규칙 및 명령에 따라 세부 규정으로 보완됨
- 태국에서는 1911년부터 정부 승인하에 보험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산업 관련 규정은 민법 및 상법의 세부 규정을 통해 1925년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후 새로운 법의 도입 및 개정을 통해 보험 관련 법률은 꾸준히 발전해 왔음
 - 태국의 생명보험은 1900년에 영국 에퀴터블 생명보험회사(Equitable Insurance)가 태국의 동아시아회사(East Asiatic Co.)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전문 건강보험회사는 1979년 최초로 설립되었음

〈표 3〉 태국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제
1911	• Partnerships and Companies Act : 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도록 요구
1925	• Civil and Commercial Code : 최초로 보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도입
1967	• Life/Non-Life Insurance Act, B.E. 2510 : 각각 외국 생명·손해보험회사가 지점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최초의 생명·손해보험법
1990	• Social Security Act, B.E. 2533(1990) : 민간 부문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 대해 급부를 제공하기 시작
1992	• Life/Non-Life Insurance Act, B.E. 2535(1992) : 1967년 법률을 대체, (재)보험회사에 대한 면허 및 운영 요구 사항 명시, 민영건강보험 규제 시작 • Protection for Motor Accident Victims Act : 무과실 기준 의무 자동차보험을 도입
2002	•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B.E. 2545(2002) : 보편적의료보장제도(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Scheme; UCS)를 도입하여 자영업자 및 비공식 부문 근로자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
2007	• National Health Act, B.E. 2550(2007) : 보편적의료보장제도의 치료 범위 확장, 국민보건의회(National Health Assembly; NHA) 설립
2008	• Life/Non-Life Insurance Act(No. 2), B.E. 2551(2008) : 위험기반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RBC) 제도 도입, 보험소비자보호기금 설치, 외국인 소유 한도를 25%에서 49%로 증률
2009	• Product Liability Act 및 Consumer Case Procedure Act 도입
2015	• Life Insurance Act, B.E. 2558 (2015); Non-Life Insurance Act, B.E. 2558(2015) : 보험회사의 허용 자본구조, 보험기금의 출자 및 관리, 보험회사의 청산절차 등에 관해 1992년 법률 개정
2017	•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태국 보험회사에 대해 외국인이 49%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¹⁾
2019	• Amendments to the Life/Non-Life Insurance Act, B.E. 2535(1992) : 보험중개인에 대한 의무, 규정 위반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새롭게 추가, 온라인 채널과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2021	• Regulations on Receiving and Considering Insurance Complaints 2021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에 제출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²⁾
2022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BE 2562(2019) : 데이터 처리·보호의 필요성 및 이에 관한 보험회사의 요구 사항 명시

주: 1) Baker Mckenzie(<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asia-pacific-insurance/asia-pacific/thailand/topics/insurance-regulatory-landscape-and-key-considerations-for-ma-transactions>) 참고 바람

2) 보험회사는 태국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관련 민원서류를 수취한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태국에서는 1987년 사적 연금을 시작으로 근로자재해기금, 퇴직금, 보편적최저연금, 퇴직저축기금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시스템·연금제도가 꾸준히 발전해 왔음

- 1987년 Provident Fund Act, B.E. 2530(1987)의 도입으로 사적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자발적 적립 기금에 대한 규제체계와 함께 기금 설립, 기여금 및 급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 개정안을 통해 퇴직 시 정액 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둘 이상의 투자 정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2015년 개정안을 통해 기여율의 상한선이 확대되었음
- 1990년 Social Security Act, B.E. 2533(1990)의 도입으로 민간 부문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개정안을 통해 국가 연금이 도입되었고, 2011년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의 제공이 비공식 부문 근로자에게까지, 2015년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시스템이 임시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었음
- 1992년 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1992)의 도입으로 적립기금의 자산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
- 1994년 Workmen's Compensation Act, B.E. 2537(1994)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가 근로자재해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재해기여금 및 급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형성되었으며, 2018년 개정안을 통해 보장 급부가 증가하였음
- 1998년 Labour Protection Act, B.E. 2541(1998)의 도입으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형성되었으며, 2017년 개정안을 통해 법정 퇴직연령이 60세로 연장되었고, 2019년 개정안을 통해 퇴직 및 출산 시의 혜택이 증가하였음
- 2009년 Order of the Ministry of Interior on the Payment of Old Age Allowance by Local Authorities, B.E. 2552(2009)의 도입으로 1993년에 도입된 노령 현금 수당이 60세 이상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최저연금(Universal Minimum Pension; UMP)으로 확대되었음
- National Savings Fund Act, B.E. 2554(2011)의 도입으로 2012년, 국가가 지원하는 Pillar III 자발적 퇴직저축기금인 국민저축기금(National Savings Fund; NSF)이 설립되었음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태국에서는 1929년 최초의 보험 감독기관 보험관리부(Division of Insurance Control)가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Insurance Business Regulation and Promotion Committee Act, B.E. 2550(2007)에 따라 태국 보험감독위원회가 보험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

〈표 4〉 보험 감독기관의 역사

연도	보험 감독기관 명칭 및 소속
1929	• Insurance Division : Office of Permanent Secretary of Ministry of Commerce and Transport
1933	• Insurance Company Control Division : Department of Commerce Registra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1941	• Insurance Company Control Department : Partnership/Company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Registration
1952	• Insurance Division : Department of Commerce Registration
1968	• Insurance Division : Office of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1972	• Insurance Office : Office of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Commerce
1979	• Insurance Office : Ministry of Commerce
1980	• Department of Insurance : Ministry of Commerce
2007	•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 Ministry of Finance ¹⁾

주: 1)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은 Ministry of Finance의 감독을 받음

자료: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https://www.oic.or.th/en/consumer/about/recommended>)을 기초로 작성함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부담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에 이를 보고함

- 상품 종류 및 계약 형태에 따라 부담률은 상이하며,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3%까지 부담률이 정해져 있음

〈표 5〉 상품 종류 및 계약 형태별 부담률

(단위: %)

상품 종류	구분	부담률	
비투자성 생명보험	정기납	신계약	0.30
		보유계약	0.15
	일시납	0.15	
투자성 생명보험	정기납·일시납	0.10	
손해보험	총 수입보험료 10억 바트 미만		0.30
	총 수입보험료 10억 바트 이상 50억 바트 미만		0.25
	총 수입보험료 50억 바트 이상		0.20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권한

-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B.E. 2535(1992)) 및 손해보험법(Non-Life Insurance Act, B.E. 2535(1992))에 따른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권한에는 보험회사 승인 및 면허 발급 외에도 결정, 명령 및 진행, 모니터링 및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있음

〈표 6〉 태국 보험감독위원회 주요 권한

분류	내용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공공 유한 보험회사 승인 • 내각의 동의를 얻어 외국 보험회사의 태국 내 지사 설립 승인 • 보험회사 합병 승인 • 보험상품 구성 및 보험료율에 대한 승인 • 재보험 계약 승인
발급 및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보험중개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에 대한 면허 발급 • 투자 규정 발행 • 위험기반자기자본(RBC) 관련 규정 발행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준비금 및 자본금의 규모와 구성 결정 • 면허 취소 결정¹⁾ • 중개 수수료율 결정
명령 및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 명령 • 구조 조정 절차 진행 •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금 증액 명령
모니터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 모니터링 •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법(Protection of Motor Vehicle Accident Victims Act)의 행정 관리

주: 1)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③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④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⑤ 존속이 보험소비자와 대중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소를 결정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나.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단기 계획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가 발표한 5개년 보험산업 개발계획(Insurance Development Plan Vol. 4 (2021~2025))에 따르면, 위원회의 향후 5년 동안 규제 우선순위는 소비자보호, 디지털 기술의 응용, 태국 보험산업의 국제적 홍보에 있을 것임
 - Vol. 1(2006~2011)에서는 보험감독권 구조 개편, 생명보험법 및 손해보험법 개정, 국민의 요구와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었음

- Vol. 2(2010~2014)에서는 보험산업이 사업 운영 및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 헤지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기반 감독 및 심사, 보험제도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두었음
- Vol. 3(2016~2020)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산업 규제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의 보험급부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 Vol. 4(2021~2025)에서의 주요 4대 전략은 ①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기 위한 보험사업 개발 및 장려, ② 공공·민간 부문의 보험리스크 관리문화 조성, ③ 경제 및 사회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험제도의 역할 증진 ④ 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험 인프라 개발임

다.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태국 내 보험 면허는 생명보험 면허와 손해보험 면허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하위 등급의 면허는 존재하지 않음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법인은 ① 관련 보험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설립된 태국 보험회사, ② 외국 지점 사업 면허를 보유한 외국계 보험회사임
- 1997년 13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보험 면허 발급 이후로, 현재까지 신규 발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태국기업이 태국에서 보험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것임
 - 신규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추가 합병 등이 지속해서 필요하기에 신규 면허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임
- 재보험 면허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보험업을 수행하는 데 특정한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2001년 이후 종합보험회사의 운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2019년부터 수수료 없는 보험상품을 순수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신규 시장 진입자와 순수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려는 기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면허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개인상해보험 및 민영의료보험 영역은 손해보험업에 속하지만, 특약 형태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음

라. 보험회사 최저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태국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 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이 불명확하며, 업종별로 상이한 최소 자본금 요건 및 예치금 요건을 지니고 있음
 - 생명(재)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은 1997년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5,000만 바트, 1997년 이후로 면허를 발급받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5억 바트이며, 2008년부터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 관련 요구 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함
 - 최저 자본금 요건과는 별도로 보증금 2,000만 바트를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함
 - 손해(재)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은 1997년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000만 바트, 1997년 이후로 면허를 발급받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억 바트이며, 2008년부터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 관련 요구 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함
 - 손해보험업은 화재, 해상 및 운송, 자동차, 기타 4가지로 구분되며, 최저 자본금 요건과는 별도로 사업 부문당 350만 바트의 보증금을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함
-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모든 보험회사는 최소 요구 자본적정성비율(Capital Adequacy Ratio; CAR) 140%를 충족하여야 함³⁾
 - 기존 기준은 2019년 도입된 RBC2에 따라 지속해서 진화할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업의 CAR은 2020년 말 325%에서 2021년 말 348%로 대폭 증가하였음
 - 60일 이상 연체된 미회수 보험료는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에 따라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21년 1월부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지급여력 강화 차원에서 후순위채 형식으로 보험자본채권(Insurance Capital Bonds)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음

마. 소비자보호 규제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모든 보험 계약에 보험금 중재 관련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있음
- 태국 내 보험 ombudsman은 존재하지 않지만,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 시 태국 보험감독위원회는

³⁾ 자본적정성비율이란 총 가용 자본(Total Available Capital)을 총 위험 자본 요구량(Total Risk Capital Requirement)으로 나눈 값임

2008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며, 비록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대체로 보험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음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중재 절차는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해결됨
- 태국손해보험협회(Thai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TGIA)는 보험회사 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별도의 중재사무소를 운영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분쟁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중재사무소 내 중재인은 4명의 은퇴한 법원 판사로 구성되며 다루는 사건의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관련임
- 2021년 10월 Regulation on receiving and considering complaints, B.E. 2564(2021)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태국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관련 민원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함
 - 사건별로 7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음
- 2015년 개정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 청산 시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이에 더해, 감사 결과는 3일간 연속하여 3개 이상의 국내 보급신문에 고시됨

바.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외국 법인은 공공 유한 보험회사 또는 지점 형태로 태국 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나, 모든 외국 회사의 태국 보험시장으로의 진출은 현지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 매입 방식으로 실현되었음
- 2015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 법인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승인 요건 없이 태국 보험회사의 지분을 25%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태국인 개인이 태국 보험회사의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과반수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제거되었음
 - 비태국인 주주의 정의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B.E. 2542(1999))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의 정의를 따름
 - 태국 보험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는 외국인 주주·외국 법인은 ① 보험회사이거나 보험 관련 금융회사여야 하며, ②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③ 적절한 보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④ 국제 표준에 맞는 운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⑤ 투자 대상 보험회사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

- 태국 보험회사의 소유권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최대 49%까지 허용되며,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추천과 태국 재무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49% 이상도 허용됨
 - 49% 이상 허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보험소비자 또는 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보험회사의 지위 및 운영을 개선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②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또는 ③ 태국 보험산업 전체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추가로, 태국 보험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최소 요구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최소 40억 바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최소 10억 바트의 주식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 전략, 리스크 및 자본 관리, 기술이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3개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49% 이상의 지분 보유가 승인된 외국인인 5% 이상의 외국인 지분 변동이 있거나, 승인된 외국인 주주가 다른 외국인 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태국 재무부의 허가 없이 태국에서 다른 보험사업을 할 수 없음
 - 배당금 지급은 제출한 사업 계획서대로 진행해야 함

사. 보험회사 투자 규제

- 1992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명시된 법정 보유 한도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한 보험리스크에 대해 총 자본의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음
 - 대체로 보험회사들은 양호한 등급의 보험리스크에 대해 허용된 최대 보유량을 유지하지만,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규모를 축소하기도 함
-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하에서 보험회사는 투자 위험을 개별 보험회사의 자본 강도와 최소한 일치시켜야 하며, 투자 포트폴리오 내 최대 40%까지 위험 자산에 가중치를 둘 수 있음
 -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의 목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최소 요구 자본적정성비율을 맞추게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정성비율이 준수되는 한 더 높은 자본 수준을 가진 기업이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위험기반자기자본 평가 요구 사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시장위험자본금(Market Risk Capital Charge; MRCC)을 부채 이상으로 보유해야 함
 - 시장위험자본금은 각 증권 가치에 적절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계산됨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환매 계약 방식으로 증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태국 은행(Bank of Thailand; BOT)의 승인을 받은 당사자와 무제한적으로 증권을 차입하거나 대출할 수 있음

- 2019년 생명 및 손해보험 투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투자 범위는 사모펀드, 부동산, 뮤추얼 펀드 및 인프라 투자신탁까지 확대되었으며, 보험회사가 요양원, 장기요양사업, 디지털 보험회사의 주식 또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
 - 추가 개정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투자 범위가 해외 벤처캐피털, 신디케이트 론까지 더욱 확대되었음
 - 규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보험회사 이사회가 신용 활동에 참여할 때 신용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추가되었음

아. 의무보험

- 2019년 4월 Immigration Act, B.E. 2522(1979)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장기체류 비자(비이민 비자 O-A)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50세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 2021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최소 보장 담보는 기존 40만 바트(입원 환자 대상), 4만 바트(외래 환자 대상)에서 10만 달러 또는 300만 바트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치료가 추가로 의무화됨
 -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 한해, 국가 차원에서 300만 바트의 재정적 보증이 제공됨
- 2023년 1월부터 음성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의료 및 검역 비용에 관한 여행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외에도 태국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은 손해보험 위주로 다수 존재함

〈표 7〉 태국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법률 및 내용
자동차 제3자 상해보험	•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법(Protection for Motor Vehicle Accident Victims Act, B.E. 2535(1992))
국가 근로자 재해보험 제도	• Workmen's Compensation Act, B.E. 2537(1994)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근로자 재해보험 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고층 및 대형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 Building Control Act, B.E. 2522(1979) : 80실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고층 및 대형 건물에 적용되며, 건설·개조·증축·철거 중인 건물에도 적용됨
케이블카 운영자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 Ministerial Regulations on Controlling Electric Cable Cars, B.E. 2564(2021) : 사망·의료비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관련 내용 외에도, 케이블카의 건설,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요구 사항 또한 명시되어 있음

〈표 7〉 계속

종류	관련 법률 및 내용
연료 및 가스 시설 운영자에 대한 화재 및 폭발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nisterial Regulation on Prescription of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pertaining to notification, permission and fees for conduct of fuel oil operations, B.E. 2556 (2013); Fuel Oils Control Act(No 2), B.E. 2550(2007) : 관리 사업 유형 3에 해당하는 시설은 운영하는 자는 운영 과정에서 초래되는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위험 물질 운송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tification of Ministry of Industry Re: Insurance for Hazardous Waste Transportation, B.E. 2549(2006) : 위험 물질 운송업자는 제3자 신체상해, 제3자 재산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해양 기름 오염에 대한 선주의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2000 : 모든 선주는 기름 오염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2,000톤 이상의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유출에 대한 최대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유지해야 함
제트 스키 손상에 대한 재물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국 정부의 규정에 따름
2kg 이상의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한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Rules to Apply for Permission and Conditions to Control and Launch Unmanned Aircraft in the Category of Remotely Piloted Aircraft, B.E. 2558(2015) : 무게가 25kg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에 등록해야 함
항공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ai Department of Civil Aviation(DCA)의 규정에 따름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III

보험시장 현황

1. 보험시장 구조

- Swiss Re에 따르면 태국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7위이며,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69%, 손해보험이 31%를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임
 - 1969년 태국의 보험시장이 개방된 이후, 생명보험 원수보험료는 78백만 바트에서 2022년 기준 611,106백만 바트로 연평균 18.4% 성장했고,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는 458백만 바트에서 2022년 기준 274,216백만 바트로 연평균 12.8% 성장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1년 태국의 생명보험시장은 2020년 대비 2.3% 성장했고, 2021년 태국의 손해보험시장은 2020년 대비 5.2% 성장함
 - 태국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이 최소 100~500바트를 납입하면, 코로나19 감염 시 최대 10만 바트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 시기에 보험가입자 수가 급증하였음
 - 글로벌데이터의 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태국은 자동차 판매 회복, 정부의 인프라 사업 확대, 자연재해 보험수요 증가로 인해 2025년에는 보험료 성장률이 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표 8〉 태국 보험산업 원수보험료 규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수보험료	생명보험	627,387	610,558	599,810	613,845	611,106
	손해보험	231,990	244,055	252,618	262,795	274,216
원수보험료 성장률(%)	6.2	5.2	3.5	4.0	4.3	
실질 GDP 성장률(%)	4.2	2.2	-6.1	1.5	2.6	

자료: TGI(<https://www.tgia.org/Non-LifeStatistics-EN>)

- 2022년 기준 태국의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3.5%, 8,749바트인 반면, 손해보험시장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1.6%, 3,926바트로 생명보험시장에 비해 낮은 편임

〈표 9〉 연도별 태국 보험시장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¹⁾

(단위: %, 바트)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생명보험	보험침투도	3.8	3.6	3.8	3.8	3.5
	보험밀도	9,078	8,814	8,629	8,809	8,749
손해보험	보험침투도	1.4	1.4	1.6	1.6	1.6
	보험밀도	3,357	3,521	3,634	3,771	3,926

주: 1)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 Rate)와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각각 수입보험료/명목GDP, 수입보험료/인구 수로 정의됨

자료: TGIA(<https://www.tgia.org/Non-LifeStatistics-EN>)

○ 태국의 보험침투도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지만, 2014년 규제 당국이 설정한 목표인 6%보다는 낮은 수준임

- 아세안 국가 총보험료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34.3%로 가장 높고, 태국 21.4%, 말레이시아 15.3%, 인도네시아 15.1%, 베트남 7.2%, 필리핀 6.2% 순임

〈표 10〉 아시아 주요국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0년 기준)

(단위: %, USD)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건강보험 ¹⁾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태국	3.08	217.90	1.31	92.44	1.04	73.78
라오스 ²⁾	0.05	1.31	0.55	14.20	-	-
말레이시아	2.77	314.11	1.05	118.95	0.13	14.58
필리핀 ²⁾	1.60	56.72	0.49	17.26	0.27	9.43
싱가포르	8.79	5,871.85	0.72	480.56	1.06	704.95

주: 1) 생명보험의 특약으로 제공되는 상해·건강 보장은 생명보험으로 분류됨

2) 라오스와 필리핀의 수치는 예측치임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태국 내 모든 보험 계약의 공식 언어는 태국어이며, 영어 번역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보험료를 바트로 책정하기 위해 보험 약관에 합의된 환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음

2.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1년 기준 태국 생명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613,845백만 바트이며, 전년 대비 2.3% 증가함
 -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0.6%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2년 기준 생명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611,106백만 바트로 0.5% 감소함
 - 2021년 기준 생명보험회사 총자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162,700백만 바트였으며, 생명보험회사는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영업손실을 경험하고 있음

〈표 11〉 태국 생명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원수보험료	금액(바트)	600,303	627,387	610,558	599,810	613,845
	증가율	5.6	4.5	-2.7	-1.8	2.3
총자산	금액(바트)	3,181,556	3,413,867	3,875,800	4,102,841	4,162,700
	증가율	9.9	7.3	13.5	5.9	1.5
영업이익	금액(바트)	-18,050	-16,694	-34,962	-32,510	-29,968

자료: TIBA(2022), "TGIA Market Update"; AXCO(2023),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일반보험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근에는 변액보험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상품별 점유율은 일반보험이 77.0%로 가장 높았으며, 변액보험(9.4%), 단체보험(8.2%), 연금보험(2.9%), 소액보험(1.0%)이 뒤를 이었음
 - 변액보험(Unit-Linked)은 보험상품 출시 당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저금리 지속에 따른 종신보험 상품의 매력도 감소로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소액보험(Industrial)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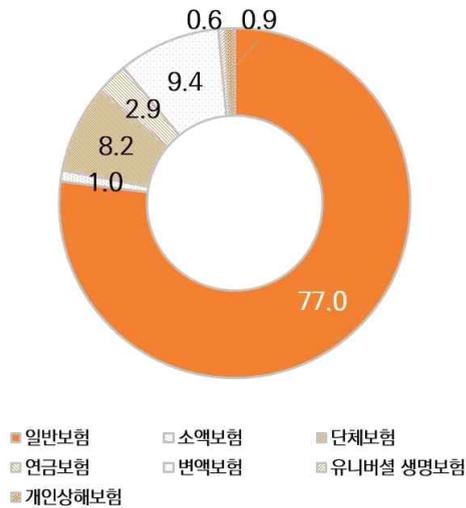
〈표 12〉 생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20	2021	증가율
일반보험	394,000	378,887	-3.8
소액보험	5,410	4,946	-8.6
단체보험	40,702	40,092	-1.5
연금보험	13,770	14,235	3.4
변액보험	25,255	46,059	82.4
유니버설생명보험	2,083	3,108	49.2
개인상해보험	4,891	4,567	-6.6
합계	486,111	491,894	1.2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그림 1〉 원수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상품별 점유율
(단위: %)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생명보험 특약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원수보험료는 93,165백만 바트로, 70%대의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함
 - 2021년 기준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04백만 바트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16.49%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원수보험료는 8,650백만 바트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7.10% 비중을 차지함
 -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각각 전년 대비 20.54%, 8.86% 증가한 반면, 기타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4.38% 감소함

〈표 13〉 생명보험 특약별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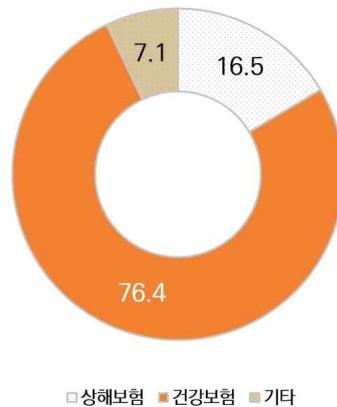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20	2021	증가율
상해보험	16,679	20,104	20.5
건강보험	85,580	93,165	8.9
기타	11,439	8,650	-24.4
합계	113,698	121,919	7.2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그림 2〉 생명보험 특약별 구성비

(단위: %)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태국 생명보험시장에는 2022년 기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존재하며, 2021년 원수보험료를 기준 AIA가 전체 시장의 25.6%를 장악하고 있음
 - FWD Life Insurance는 FWD Life Insurance와 SCB Life Insurance가 합병한 생명보험회사이며, 13.2%(3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시장점유율 10위인 Southeast Life Insurance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0.5% 증가한 반면, 일부 보험회사(Thai Life Insurance, Muang Thai Life Assurance, Krungthai AXA Life)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표 14〉 태국 생명보험업 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바트, %)

순위	회사명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AIA	145,845.91	24.3	157,446.31	25.6	8.0
2	Thai Life Insurance	91,292.38	15.2	90,564.11	14.8	-0.8
3	FWD Life Insurance	80,348.04	13.4	81,055.55	13.2	0.9
4	Muang Thai Life Assurance	75,327.29	12.6	72,976.73	11.9	-3.1
5	Krungthai AXA Life	54,651.00	9.1	50,021.09	8.2	-8.5
6	Bangkok Life Assurance	34,744.64	5.8	35,761.73	5.8	2.9
7	Allianz Ayudhya Assurance	31,452.10	5.2	32,068.44	5.2	2.0
8	Prudential Life Assurance	24,312.45	4.1	26,806.39	4.4	10.3
9	Ocean Life Insurance	14,619.93	2.4	14,711.75	2.4	0.6
10	Southeast Life Insurance	8,344.79	1.4	10,890.94	1.8	30.5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 보험중개인 순으로 높음

- 원수보험료 비중은 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가 각각 52.4%, 39.6%인 반면, 보험중개인, 텔레마케팅의 비중은 각각 3.8%, 2.3%임
 - 태국 보험회사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거나 법인보험중개인과 제휴를 맺어 온라인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보험중개인과 이메일 채널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3.9%, 10.5% 감소한 반면, 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기타 채널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2.4%, 6.5%, 1.5%, 13.4% 증가하였음

〈표 15〉 태국 생명보험업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천 바트, %)

구분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보험중개인	24,726,492	23,755,906	-3.9
보험설계사	316,415,096	324,033,191	2.4
방카슈랑스	230,302,923	245,194,756	6.5
이메일	44,837	40,139	-10.5
텔레마케팅	14,283,187	14,500,793	1.5
기타	9,681,146	10,975,412	13.4
합계	595,453,681	618,500,197	3.9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채권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 자산운용 구성비는 채권(79.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식(8.8%), 투자 신탁(5.9%), 대출 (5.1%), 자산(0.7%) 순임
- 2021년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구성비는 2017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표 16〉 태국 생명보험업 자산운용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	금액	1,967,236	2,044,487	2,271,230	2,271,447	2,372,144
	구성비	79.7	79.7	79.3	79.3	79.5
주식	금액	250,456	224,876	261,836	261,836	261,297
	구성비	10.1	8.8	9.1	9.1	8.8
투자 신탁	금액	110,294	141,042	173,422	173,422	175,308
	구성비	4.5	5.5	6.1	6.1	5.9
대출	금액	121,042	133,605	139,136	139,134	151,204
	구성비	4.9	5.2	4.9	4.9	5.1
자산	금액	20,271	20,170	19,922	19,922	22,055
	구성비	0.8	0.8	0.7	0.7	0.7
합계		2,469,301	2,564,182	2,865,549	2,865,763	2,982,010

자료: AXCO(2023),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태국 손해보험시장은 생명보험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으나, 2021년 기준 원수보험료는 약 262,795 백만 바트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태국 손해보험시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6%의 성장을 하였으며, 2022년에는 4.35% (274,216백만 바트) 성장함
- 2021년 기준 손해보험회사 총자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505,826백만 바트였으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27백만 바트로 적자를 기록함

〈표 17〉 태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원수보험료	금액(바트)	218,434	231,990	244,055	252,618	262,795
	증가율	4.1	6.2	5.2	3.5	4.0
총자산	금액(바트)	457,897	468,240	469,179	483,301	505,826
	증가율	-1.5	2.3	0.2	3.0	4.7
영업이익	금액(바트)	13,245	9,369	11,914	13,653	-1,027

자료: TGIA(<https://www.tgia.org/Non-LifeStatistics-EN>);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2020년 태국 보험감독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 판매를 승인한 이후, 20여 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이로부터 손해보험업은 막대한 손실을 경험함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4,000만여 개의 상품을 판매했으며, 코로나19 진단에 대한 최대 보장액은 20만 바트였음
- 태국손해보험협회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통틀어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으로 인한 시장 손실은 대략 1,000억 바트 정도였음
- 미지급 청구액으로 인해 2021년 12월에는 The One Insurance가, 2022년 4월에는 Southeast Insurance와 Thai Insurance가 면허 취소되었음
 -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Southeast Insurance는 손해보험시장에서 6위를 차지하는 대규모 손해보험회사였음
- 2022년 5월에는 Syn Mun Kong Insurance는 상당한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보험금 청구로 인하여 파산·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Syn Mun Kong Insurance는 손해보험시장에서 7위를 차지하는 대규모 손해보험회사였음
 - 회사의 부채는 200만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에서 대략 420억 바트 정도였음

○ 태국 손해보험시장 상품별 점유율에서 자동차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상품별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56.1%로 가장 높았고, 기타특종보험(37.6%), 화재보험(3.9%), 해상보험(2.4%)이 뒤를 이었음
 - 2021년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6,318백만 바트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으며, 손해보험 상품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자동차보험 내 의무보험 원수보험료는 18,634백만 바트(12.6%), 임의보험 원수보험료는 128,772백만 바트(87.4%)였음

〈표 18〉 손해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20	2021	증가율
화재보험	10,167	10,355	1.8
해상보험	5,290	6,318	19.4
자동차보험	146,017	147,407	1.0
기타특종보험	91,145	98,669	8.3
합계	252,618	262,746	4.0

자료: TGIA(<https://www.tgia.org/Non-LifeStatistics-EN>)를 기초로 작성함

〈그림 3〉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상품별 점유율
(단위: %)



자료: TGIA(<https://www.tgia.org/Non-LifeStatistics-EN>)를 기초로 작성함

- 기타특종보험 상품별 손해보험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개인상해보험이 3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기타특종보험의 경우 산업재산종합보험 29.5%, 건강보험 19.0%, 기타 15.5% 순으로 판매됨
 - 여행보험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1.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자유보험은 전년 대비 1.6%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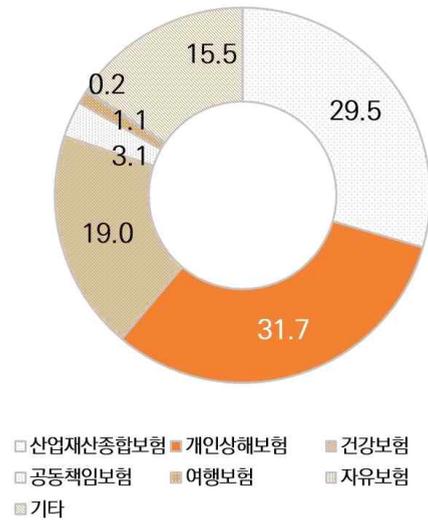
〈표 19〉 기타특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20	2021	증가율
산업재산종합보험	26,676	29,084	9.0
개인상해보험	30,954	31,234	0.9
건강보험	15,632	18,738	19.9
공동책임보험	2,793	3,021	8.2
여행보험	860	1,130	31.4
자유보험	159	157	-1.6
기타	14,071	15,305	8.8
합계	91,145	98,669	8.3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그림 4〉 원수보험료 기준 기타특종보험 상품별 점유율
(단위: %)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태국 손해보험시장에는 2022년 기준 53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존재하며, 2021년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Viriyah Insurance가 전체 시장의 14.6%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50억 바트 이상 자산을 가진 대형 보험회사는 17개 사이고, 10억 바트 이상 50억 바트 미만의 자산을 가진 중·소형 보험회사는 36개 사임

- 태국 손해보험시장은 Viriyah Insurance, Dhipaya Insurance, Bangkok Insurance가 주도하고 있으며,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CR3는 34.1%로 나타남
 - Tokio Marine Safety Insurance는 Tokio Marine Insurance와 Safety Insurance가 합병한 손해보험회사로, 6.8%(4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20〉 태국 손해보험업 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바트, %)

순위	회사명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Viriyah Insurance	38,154.70	15.1	38,766.60	14.6	1.6
2	Dhipaya Insurance	25,205.57	10.0	28,996.95	10.9	15.0
3	Bangkok Insurance	21,546.50	8.5	22,952.52	8.6	6.5
4	Tokio Marine Safety Insurance	17,454.86	6.9	17,946.77	6.8	2.8
5	Muang Thai Insurance	14,776.39	5.8	15,829.61	6.0	7.1
6	Southeast Insurance	10,495.87	4.2	11,730.76	4.4	11.8
7	Syn Mun Kong Insurance	9,714.70	3.8	10,170.69	3.8	4.7
8	Chubb Samaggi Insurance	10,151.24	4.0	9,820.11	3.7	-3.3
9	LMG Insurance	8,114.02	3.2	8,565.34	3.2	5.6
10	Thanachart Insurance	8,421.97	3.3	8,334.07	3.1	-1.0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손해보험시장 내 주요 판매채널은 보험중개인 채널이며 방카슈랑스, 보험회사 방문이 뒤를 잇고 있음
 -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시장 내 판매채널 비중은 보험중개인, 방카슈랑스, 보험회사 방문이 각각 72.1%, 10.3%, 8.1%를 차지하였음
 - 보험중개인 채널은 보험중개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보험중개인 채널의 비중은 2020년 59%에서 2021년 72%로 급증하였음
 - 태국 내 기업 보험중개인은 500여 명, 개인 보험중개인은 10만여 명, 보험설계사는 21,000여 명임
 - 보험중개인의 수수료는 화재 및 위험보험이 23%로 가장 높고, 선박적하보험 13%, 의무보험 12%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8%임

〈표 21〉 태국 손해보험업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천 바트, %)

구분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보험중개인	151,118,615	183,386,889	21.4
보험회사 방문	13,619,090	20,498,377	50.5
보험설계사	34,304,063	16,757,383	-51.2
방카슈랑스	29,121,915	26,227,434	-9.9
이메일	0	300	-
텔레마케팅	8,941,716	1,278,580	-85.7
직장단체	15,056,997	4,585,954	-69.5
인터넷	1,011,653	682,900	-32.5
기타	0	850,781	-
합계	253,174,049	254,268,599	0.4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IV

시사점

-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이며, 웰니스·의료 관광 분야에서 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출산율 감소,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주변국 대비 높은 최저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는 국가임
 - 태국은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유입됨에 따라 최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
- 태국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7위이며,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및 생명·손해보험회사 투자 규제가 꾸준히 완화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태국 보험회사 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 한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꾸준히 완화되어,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재량하에 최대 49%까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추천과 태국 재무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49% 이상의 지분 소유도 허용됨
 - 투자 범위와 관련된 규제 또한 꾸준히 완화되어, 생명·손해보험회사는 사모펀드, 부동산, 뮤추얼 펀드, 인프라 투자신탁에 더해 해외 벤처캐피털, 신디케이트 론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됨
-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기인하여 변액보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21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경험했다는 점,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기간 발생한 상당 규모의 영업손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저자약력

오병국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bkoh@kiri.or.kr

김성균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ksk7757@kiri.or.kr

김연희 성균관대학교 문화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eonhee@kiri.or.kr